

# 평촌종합상가

## Pyeongchon Complex Bldg.

김영택+최수의 /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원건축  
 Designed by Kim Young-Taik & Choi Soo-Ik

이 대지는 평촌아파트 단지의 중심상업지역내에 위치한 장방형의 대지로서 2면은 20m 및 6m의 보행자 전용도로로 접해있고 1면은 10m 간선도로에 접해있다.

최초 Project를 접하고 나서 느낀점이 있다면 건축주가 57인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설계요구사항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과, 도시설계로 규정지워진 내용(인접건물과 합벽개발, 1층 전면부에 3m 폭의 회랑설치, 건물높이 20m 이하)으로 인하여 건물주변의 분위기가 특징없이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였다. 조합원들은 토지대금만 납부하고 건축비는 1층 및 지하층 일부를 분담한 금액으로 총당할 예정이였다.

따라서 계획의 기본방향은 1층 점포의 면적을 가능한 크게 하되 상부 조합원들이 나누어가지질 공간의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였다.

20m의 건물높이 규제한도를 지키며 층수를 최대한 하 기위하여 flat slab를 사용하면서 층고를 최소화하고 6층으로 계획하였다. 특히 건물의 인지성을 높이고 상층부로 보행자 동선을 원활히 유입하기 위하여 보행자도로가 교차하는 대지 귀퉁이에 옥외계단을 설치하고 계단내부에는 지하로는 선릉, 1층에는 보행통로의 연결, 상층부는 bridge 설치 등으로 옥외계단 주변을 건물의 major space로 구성하였다. 즉 옥외계단을 진입하기 위한 길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조명 및 색채계획에 특징을 부여함으로써 건물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건물의 외벽이 상점의 용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외벽을 module화 하였으며, 건물이 간판으로 뒤덮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판 부착장소를 고려한 입면계획을 하였다. 대지에 근접해서 전철역 입구가 있고 고객들이 밤에도 퇴근하면서 상점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어 건물의 야간 조명계획에 주의를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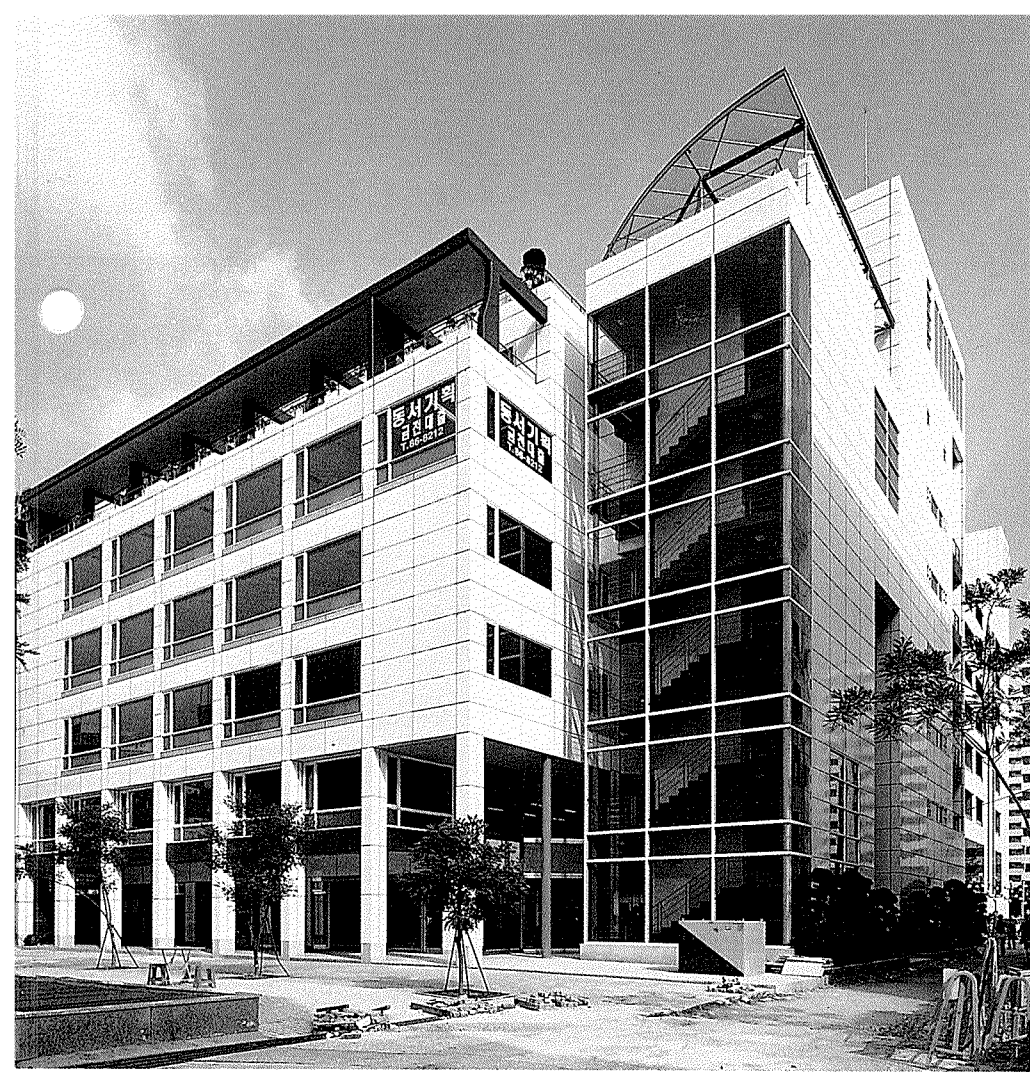
옥상에는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아파트에서 건물의 옥상을 내려다볼때의 하향시각 요소를 고려하였으며, 건물 최상층의 전면에는 1m의 파고리를 설치하고 밀면에 강한 색채를 칠하고 상향조명으로 강조하므로서 야간에 주변건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였다.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옥외계단의 유리벽을 Bar가 아닌 Hanging System에 의해 상징적으로 처리하려던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간판의 지정장소 부착, 다양한 입면구성 등이 최초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건물신축에 유달리 관심(?)을 갖고 공사도중 자기점포의 창면적이 좁다느니, 건물의 공용면적비가 너무 높다느니, 왜 가까운 공간을 옥외계단으로 처리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목청을 돋구던 사람들은 이미 점포를 팔아버린지 오래이지만 현장에서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1층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옥외계단을 이용하여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소 위안을 느껴본다.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6-6,7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외부마감	알미늄 세라믹 패널
대지면적	1,016.8㎡	외부마감	천정- 석고보드위 퍼라이트폼칠
건축면적	779.1㎡		벽 - 대리석, 뽕칠형타일
연 면 적	6,166.92㎡		바닥 - 대리석, 비닐계타일
건 폐 율	76.62%	주요설비	F.C.U 냉난방
용 적 륜	376.18%	설계담당	김용집, 김영진, 김상기, 송창훈
규 모	지하4층, 지상6층	감리담당	김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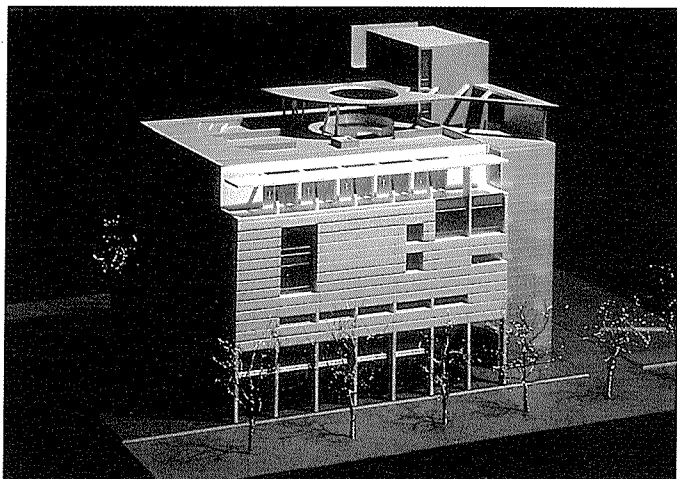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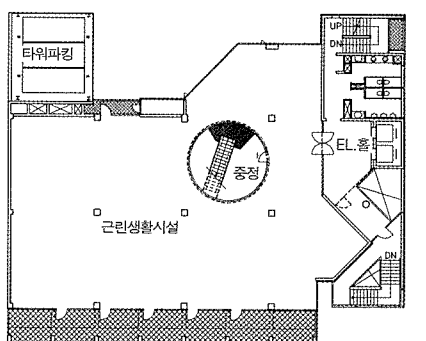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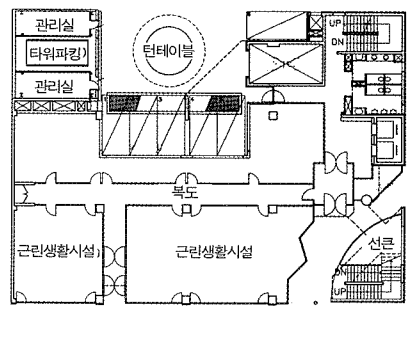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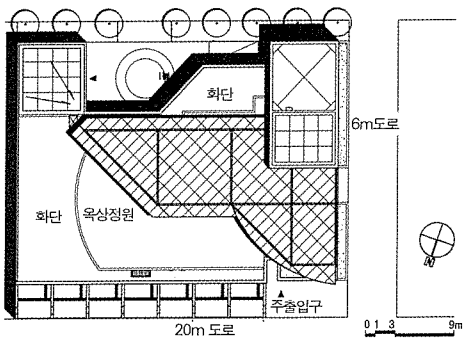
전경



옥상휴게공간



6층테라스



모델사진

